

## 시장에서 승리한 벤처기업가의 도전정신



‘벤처정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장에 변혁을 초래하는 새로운 기술의 경지를 개척하고 기업을 창업해 성공시키는 원론적인 경영학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는다. 벤처정신은 새로운 미지의 기술영역에 도전하는 모험심 가득한 기업가 정신이 무수한 실패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뤄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그 성공이 자국의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때 진정한 벤처정신은 인류사와 세계사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벤처정신을 가진 세계적인 신화를 대표하는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과 애플컴퓨터를 이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자(CEO)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이들 두 벤처기업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고, 할리우드에서는 지난 1999년 <실리콘 밸리의 신화>(Pirates Of Silicon Valley)라는 제목으로 1970년대 PC 산업 초창기의 주역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 회장과 스티브 잡스 애플 컴퓨터 CEO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뒤 회사 경영 일선에서 벗어나 자선사업 등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그런 벤처정신에 부합된다.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새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업과 제품으로 성공시킴으로써 인류의 생활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와 대조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스티브 잡스 역시 처참한 실패와 역경을 겪으면서도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이를 극복한 불퇴전의 CEO라는 점에서 역시 벤처정신의 정수라 부를만하다. 스티브 잡스는 그동안 무수한 역경을 거쳤다. 첫 고난은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다. 입양아로 자란 어린 시절, 어려운 양부모의 가정형편 때문에 1학기 만에 중퇴한 대학 생활은 그에게는 시련이었다. 그러나 그는 대학 중퇴와 함께 벤처기업 창업이라는 승부수로 이를 돌파했다. 1976년 21세 나이에 1300달러를 가지고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창업하면서, 세계적인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음해인 1977년에는 세계 최초 개인용 컴퓨터 애플Ⅱ를 개발했고, 애플은 세계 정보기술 시장에 정보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스티브 잡스는 1980년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경제잡지인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세계 400대 인물 명단에 포함되는 등 내딛는 행보마다 세계를 놀라게 했다. 승승장구하면서 성장기에 닥쳐온 1차 역경을 극복하고 이룩한 잡스신화로 세계인들은 그를 경이 어린 눈길로 바라봤다.

2차 역경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지나치게 자만하고 폐쇄적인 성격에서 비롯됐다. 독재자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독단적인 성격과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이 화근이었다. 그는 기업경영의 기획부터 제품 개발, 제품 이름과 포장박스의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했다. 뛰어난 기술능력과 정보기술(IT)업계의 미래를 볼 줄 아는 폭넓은 시야와 추진력 등은 주목을 받았으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친 언사와 심한 감정의 기복으로 독단적 경영의 폐해는 갈수록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오만과 독선에 빠진 그는 1984년 마우스·윈도우·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 등 획기적 기술을 포함한 새롭게 개발한 매킨토시를 애플 컴퓨터에서만 쓰겠다고 선언했고, 제품이 보급되는 것을 막았다. 애플컴퓨터와 다른 기업 및 시장과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잡스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즉각 해고했고, 1981년 IBM이 PC를 출시했을 때 “IBM을 환영합니다”라는 전면 광고를 낼 정도로 자만심과 독선이 하늘을 찢었다. 결국 브랜드와 마케팅 능력, MS-DOS라는 오픈 운영체제로 무장한 IBM에 선두자리를 내줬고, 이는 비즈니스 역사상 최악의 의사결정이라는 악평을 받아야 했다. 그의 2차 역경이었다.

잡스는 결국 1986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자신이 초빙해온 펩시콜라 출신의 존 스컬리 회장에 의해 회사를 떠나야 했다. 당시 정보 기술 업계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었다. 자신이 만들고 손때가 묻은 회사에서 해고된 뒤 그는 취장암 선고를 받는 등 이어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신뢰와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힌 잡스는 결국 재기에 성공했다. 그는 ‘대학 중퇴’를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결정으로, ‘애플에서 해고된 것’을 인생 최고의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다져나갔다. 그는 1995년 픽사(Pixar)에서 제작한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며 잡스신화의 재기를 알렸다.

성공 가도에 다시 올라선 잡스에게 애플은 구조요청을 보냈다. 1995년 파산위기에 처하는 등 기업폐쇄의 위기에 놓였던 애플은 잡스의 복귀를 간절하게 요청했고 회사를 떠난지 12년 만에 연봉 1달러의 조건으로 잡스는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창의력 가득하고 뛰어난 기술 및 디자인과 강력한 리더십은 여전했지만, 기존의 독단적인 모습은 온데 간데 없었던 것이다. 그는 애플의 모든 혁신을 과거

처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순응해 결정했다. 특히 과거 특유의 폐쇄주의를 버리고 디즈니·MS·IBM·소니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최첨단 디자인과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애플은 재기에 성공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아이맥 PC에 이어 가전제품 사상 가장 성공한 제품으로 평가되는 아이팟(iPod) 신화를 만들어냈고, 올해는 아이폰으로 통신시장까지 잠식하겠다는 야심찬 모습을 보이며 세계 정보기술업계를 흔드는 거인으로 등장했다. 특히 아이팟은 발매 5년 만에 5000만 대가 판매되면서 MP3플레이어와 음반시장을 장악했다.

그는 중퇴했던 모교인 스탠포드대학 졸업식 연설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자신의 술한 좌절을 돌아보며 “지금 비록 찾지 못했고, 잘 모르겠다고 해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지니, 온 마음을 다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만약 일단 찾아만 낸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애정이 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현실에 주저앉지 말라”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 강한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키는 93세 때 “일생동안 많은 책을 저술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책이 뭐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의 답변은 “다음에 나올 책”이라는 것이었다. 실제 3년마다 새로운 주제로 책을 썼던 그는 끝없는 자기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한 평생 내내 꿈의 완성을 추구한 세계적인 학자로서 잡스의 놀라운 도전정신을 칭찬하곤 했다. 그는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사회가 다음 사회로 진보해나갈 수 있다고 벤처기업가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곤 했다.

중국의 병법전략가 손자는 <손자병법> 군형(軍形)편에서 “병법에 첫째는 도(度, 국토의 넓이를 재는 것)요, 둘째는 양(量, 자원의 많고 적음)이요, 셋째는 수(數, 인구의 많고 적음)요, 넷째는 칭(稱, 전력의 강하고 약함)이요, 다섯째는 승(勝, 승리와 패배의 예측)이라고 했다. 즉 지형에 따라서 도가 생기고, 도에 따라서 양이 생기고, 양에 따라서 수가 생기고, 수에 따라서 칭이 생기고, 칭에 따라서 승이 생긴다(兵法：一曰度，二曰量，三曰數，四曰稱，五曰勝。地生度，度生量，量生數，數生稱，稱生勝)고 했다. 치열한 시장에서 승리하는 벤처기업가의 도전정신은 이 같은 치밀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불굴의 노력 아래 이뤄짐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